

先史時代의 醫術

化石의 齒牙는 법랑질소멸, 농양, 농누의 흔적을 나타낸다.

19C~20C초에 걸쳐서 최초의 표본이 발견된 무렵은 齒牙나 편도선이 병소감염으로서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는 현재에는 방치된 사고방식이였다.

이 때문에 古病理學者는 先史時代의 骨格에서 볼 수 있는 치아의 감염증과 관절염을 연관시켰다. 齧齒도 舊石器時代末부터 新石器에 들어오자 確實해졌으며 古代 이집트, 特히 그후기에는 이것은 아주 보통의 병이 되었다.

그림은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벽에 그려진 先史時代(기원전 15,000~10,000年頃) 負傷을 입어 腸이 빠져 나온 들소가 男根을 내놓고 있는 人物을 내려다 보고있으며 男子는 죽은것 같다.

이 그림의 해석은 구구하지만 目的은 사냥 事故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초자연의 힘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.

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